자기소개서

|  |
| --- |
| 지원동기  시도조차 못했던 꿈에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독일계 제약회사에서 어느덧 3년 넘게 근무하고, 대학시절 가졌던 꿈이 희미해질 무렵 무심히 인터넷에서 SKT의 채용공고를 보게되었습니다. 이 채용공고로 그 동안 잊혀졌던 꿈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5년 여름, 특별한 장래희망도 없이 지냈던 대학시절에 제게도 졸업은 점차 다가왔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때 TV속에서는‘생활의 중심’이라는 기발한 SKT의 광고를 보게 되었고 깊숙히 자리잡은 모바일 문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SKT광고를 통해서 저는‘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모바일이 있다. 고로 내가 모바일(SKT)에 있으면 모든 생활의 중심에 있는 것 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SKT 입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SKT입사하고 싶은 마음 앞에는 전공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학부전공이 생명과학이라 원서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공불문 인재모집으로 이제서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중에‘별의 목소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은 몇 광년 떨어진 머나먼 우주로 떠나게 되었고 연인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여자가 너무 먼 우주로 떠나 문자가 남자에게 도착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SKT에서의 업무는 제가 경험한 업무와 다를 것 입니다. 하지만 고객만족이라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이라는 차갑고 이성적인 성질의 서비스를 위에서 언급했던 애니메이션과 같은 감성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저는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틀과 자세를 배우고 익힐 수 있었고, 이제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SKT에서, 창의력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틈새시장을 찾고, 저돌적인 추진력과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갖춘 영업마케팅 사원으로서 SKT의 한 부분이고 싶습니다.     글로벌마인드  금년 1월에 저는 아시아 시장을 선두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우수사원 총40명이 모여서 2주간 말레이지아에서 교육을 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서 동질감으로 40여명은 쉽게 친해지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의 편견일 수 있지만 중국인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자신들의 응원구호에는 ‘중화민족 만세’ 등의 민족주의적인 뉘앙스의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은 중국과 한국으로 편을 갈라 해변모래를 이용하여 회사제품을 표현하는 모래성 짓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사 제품을 표현하지는 모래성 짓기에 중국 사원들은 만리장성을 만들고 거기에 중국 NO.1을 적는 것 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팀이 만들던 모래성을 약간 컨닝하더니 만리장성 옆에다가 저희가 만들던 것을 본따서 비슷한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몰론 스위스인 채점자도 컨닝한 것은 한눈에 알아보고 한국팀의 승리로 승부는 끝이 났지만 저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중국인의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화민족은 많은 인구와 광활한 대지 등등으로 경제적, 군사적 혹은 문화적으로 최고의 나라라는 자긍심을 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지는 것 을 싫어하는 승부욕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저작권등등의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회식 때 호기심이 발동하여 술잔을 들고 중국 사원들 틈에서 같이 중화민족 만세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지만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회식이 끝날 때 까지 저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허물없이 친근하게 대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저는 중국인들의 대한 나쁜 이미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민족주의는 강하다. 하지만 먼저 그들을 인정해주면서 자발적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은 당신을 진정한 친구라 생각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첫날부터 친해졌으면 좋을 뻔 했다는 아쉬움을 남겨둔 채 헤어지게 되었지만 내가 접촉해보지 않았던 문화에 대해서 먼저 나쁜 선입견을 갖고 다가서기 보다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자세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